

추석 연휴 4대 분야 종합대책 가동

전주시 완산구, 종합상황실·분야별 대책반 등 운영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배희곤)가 민중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시민과 귀성객, 관광객이 편안하고 안전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가동기로 했다.

완산구는 오는 9월 2일부터 18일까지 약 2주 동안 △이웃사랑·나눔 복지 △가로정비·교통 △청소·위생 △공익·환경 등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총 4개 분야에 대한 추석 명절 종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특히 구는 추석 연휴 5일 동안(9월 14일부터 18일까지)은 구청 내에 종합상황실 및 분야별 대책반을 운영함으로써 각종 시민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전주를 찾는 귀성객과 전주 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계획이다.

구는 9월 20일까지 구청과 19개 동 주민센터에 이웃돕기 창구를 마련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훈훈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공을 들이기로 했다. 또, 독거노인과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에는 명절 음식과 생필품, 성금 등을 전달해 소외될 수 있는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앞장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는 명절 기간 중 차량 증가에 따른 교통정체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 단속반을 운영하고, 불법 주차차 계도 및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명절을 맞아 방문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유통시설과 재래시장, 효자공원묘지 등을 중점으로 불법 노점 및 적치물을 일제 점검하고, 도로 225개 노선과 언더패스 등 교통시설물 15개소를 사전에 점검기로 했다.

추석 명절을 맞아 환경정화 활동도 추진된다. 구는 도심 불법 광고물, 개방화장실과 공원, 하천 등에 대한 일제 정비에 나선다. 나아가, 한옥마을과 서부신시가지 등 방문객 쓰레기 상습투기 취약지 7개 중점관리구역에는 환경관리원이 배치되고 기동처리반이 운영되는 등 체계적 도심 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동시에 구는 시민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점검반 4팀을 꾸려

전통시장과 마트 등 명절 성수 식품 제조·판매업소에 대한 위생 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완산구 19개 동 주민센터에서도 명절을 맞아 자생단체 주민들과 함께 마을 환경정비 및 이웃돕기 활동을 자체적으로 추진한다.

배희곤 완산구청장은 "민중 최대의 명절 추석을 대비해 분야별 종합대책의 빈틈없는 추진과 연휴 기간 철저한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해 시민과 귀성객, 관광객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도 즐거운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안전의식을 가지고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욱기 기자

수영장 안전관리 더 똑똑해졌다

전주시설공단, AI 탑재로 시스템 업그레이드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이 수영장 익수 사고 예방을 위해 독자 개발해 특허까지 받은 '수영장 안전관리 시스템'이 인공지능(AI) 탑재로 더욱 똑똑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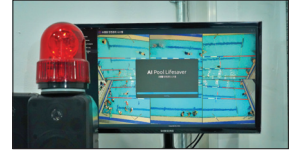
27일 공단에 따르면 완산수영장과 덕진수영장에 이어 도내기삼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 최근 '수영장 안전관리 시스템'이 도입됐다.

'에이아이 풀 라이프세이버'라는 이름이 붙은 이 시스템은 앞서 양수영장에 도입된 시스템보다 업그레이드된 모델이다.

눈에 띄는 점은 이번 업그레이드 후 수면 아래 부유하는 익수 사고자의 식별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익수 사고를 거듭 연출한 실증 시험을 통해 모든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다.

공단은 13년간 체육시설을 운영하며 특화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난 2021년 수영장 안전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듬해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를 획득했다.

또 이 시스템은 지난해 산업통상



수영장 안전관리 시스템 '에이아이 풀 라이프세이버'의 구동 화면

자원부로부터 산업융합 혁신제품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수영장 안전관리를 인력감소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기계 장치를 고안하고 만든 것도 당시에는 대단한 성과였지만 보완이 필요했고, 인공지능을 적용한 끝에 미비점을 보완했다.

공단이 민간기업과의 협력으로 2년여 지난 연구 개발 끝에 완성한 에이아이 풀 라이프세이버는 이전과 달리 수면 아래 사고자라도 반드시 식별하며, 학습을 통해 그 기능을 지속적으로 향상해 나간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 쪽구름도서관 '세계문화 놀이터'로 탈바꿈

세계문화 특화도서관으로 재개관

전주시 쪽구름도서관이 전주 북부권 대표 복합문화공간이자,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세계 시민성을 지향하는 세계문화 특화도서관으로 다시 문을 열었다.

전주시는 27일 쪽구름도서관 4층 어린이자료실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남관우 전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국주영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쪽구름도서관 재개관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사업추진 경과보고와 축하공연, 기념사 및 축사, 테이프커팅, 시설 관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시는 지난 2014년 개관한 쪽구름도서관의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고, 열람실과 자료실을 통합했다. 또, 3층과 4층을 복층계단으로 연결한 개방·공유형 공간을 구축해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는 지식문화 공간이자, '다(多)가



전주시는 27일 쪽구름도서관 4층 어린이자료실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남관우 전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국주영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쪽구름도서관 재개관식'을 가졌다.

치 다(多)함께 상상하고 발견하는 세계문화 놀이터'로 탈바꿈시켰다.

구체적으로 도서관 3층은 △'꽃밭의 발견'으로 끝나는 지식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는 사유의 공간인 '일방자료실' △소소한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휴게실' △아름다운 노을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야외 힐링 공간인 '구름

정원'으로 구성됐다.

도서관 4층은 △'특별한 상상'으로 함께 배우고 탐구하며 꿈을 찾아가는 책놀이 공간인 '어린이자료실' △호기심을 채우고 감성을 키우는 책과 첫 만남의 공간인 '유아자료실' △다양한 강연과 프로그램이 있는 배움의 열린 공간인 '강의실'이 마련됐다.

/김욱기 기자

특히 도서관 3층과 4층을 연결하는 복층계단으로 조성된 '문화광장'은 세계와 시대에 발맞춰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접대할 수 있는 '세계문화 특화 큐레이션'을 선보인다.

이곳에는 세계문화상 수상작과 각국의 명화갤러리, 세계문화유산, 세계 여러 나라의 전래이야기 등 특색있는 콘텐츠의 큐레이션으로 구성돼 있어, 도서관을 찾는 시민들이 눈길을 사로잡는 다양한 세계의 이야기를 발견하는 재미를 즐길 수 있다.

또한 문화광장에는 '다(多)가치 다(多)함께 상상하고 발견하는 세계문화 놀이터'의 주제로 세계시민성을 지향하는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5900여 권의 특화 도서가 비치됐다.

시는 다국어 일서뿐만 아니라 세계 대륙별 국가에 대한 문화와 역사, 예술을 주제로 한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수집해 시민들에게 세계문화 지식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의회-부산진구의회, 우수 의정 활동 공유

전주시의회와 부산진구의회가 27일 우수 의정 활동과 의회 운영 방안 등을 공유하고 상호 적용 방안을 모색했다.

부산진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7명은 이날 전주시의회를 방문해 남관우 의장 등을 면담하고 의회 각종 시설을 둘러봤다.

특히 방문단은 상호 우수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적용 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이후 방문단은 전주시립도서관 '꽃심'을 찾아 운영 현황 등을 살피고 부산진구 도서관 정책 변경 여부를 검토했다.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은 "부산진구 의회의 방문은 상호 효과적 의회 운영과 양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여러 지방의회와 교류를 활성화해 지역 발전을 견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의회 조례연구회, 울산 신소재 기업과 전주공장 신설 협의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조례연구회(회장 최용철 의원)가 타 지역 현장 활동을 통해 철근 대체 신소재 기업의 전주 유치 가능성을 열었다.

27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조례연구회는 지난 26일부터 이남까지 울산광역시 등의 방문을 통해 스마트관과 치유농업, 친환경, 신성장, 수소 관련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선진 사례를 벤

치마킹했다.

특히 연구회는 페플라스틱을 재활용해 철근 대체 신소재를 생산하는 울산 KCMT(대표 김준영)와 제3공장을 전주에 신설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KCMT는 해당 분야의 특수한 기술과 생산 공정으로 신소재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으로, 최근에는 추가 공

장 신설 부지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업체는 현재 울산에 1만평 규모의 제1공장과 5천평 규모의 제2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 업체 대표는 전주에 20년 이상 연고가 있으며, 이 분야에 관해서는 국내에서 독보적이라고 한다.

원료는 전주 지역에 모이는 페플라스틱 등으로 철근 대체품을 만들게 되



면 많은 수익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하며, 전주에 짓게될 3공장 규모는 약 5천평에 양질의 일자리 100개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한다.

/김욱기 기자

전주완산소방서, 소방전술훈련 평가 준비 만전

전주완산소방서(서장 박경수)는 지난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2024년 하반기 소방전술훈련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전술훈련 평가는 연 2회 실시하여 각종 재난 현장에 적절하고 적극적인 대응능력 향상을 목표로 진행하며, 소방대원의 각 업무 분야별 숙지도·숙련도·안정성을 집중 확인한다.



주요 평가 내용은 △화재분야(사다리 설치 및 등반) △구조분야(사다리 이용 들것 구조) △구급분야(심전도 판독 및 호흡을 청취, 다수사상자 분류법 평가) 등이다.

/김욱기 기자

